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세종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6.(목)	**사진 · 영상**	사진(○),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26일(목)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유인호**	☎044-300-7010

[2027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실효성 검증이 우선"

- 전체 대상지 176개소 중 140개소 설치… 시범사업 규모 적정성 지적
- 기술적 실효성 사전 검증 및 유지관리 책임 명확화 요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제110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세종시교육청 행정국소관 2027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며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사업의 추진 방식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학교 밖 학생 안전 취약지역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기존 CCTV에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하고 관제센터에 음성처리 서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교육청은 140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씩 총 4억 2천만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유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교육청이 파악한 학교 주변과 공원·어린이놀이터 등 176개소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140개소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사실상 본사업에 준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체적인 설치 대상지와 기술적 실효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기도의 공중화장실 음성인식 비상벨 감사 사례를 제시하며, 소규모 시범 설치를 통해 기술적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추진 이후 발생할 지속적인 재정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육청은 시설 설치 이후 유지관리는 세종시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고 답변했으나, 이를 명문화한 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으며 관련 중기재정 수요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사업 추진에 앞서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유지관리 비용의 부담 주체와 세종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사업의 좋은 취지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며,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일수록 충분한 사전 검증과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시범사업의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주문했다.